



교섭속보

2호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재옥

산별현장교섭 2차 교섭보고

노사 신뢰로 현장교섭 발걸음 떼,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



2차 산별현장교섭이 7월 9일 오후 3시 의과대학 318호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섭은 지난 교섭에서 정리되지 못한 교섭원칙에 대해 재논의 하고 요구안 전체 발제 및 심의까지 진행하는 등 이전 교섭에 비해 빠른 행보를 보였다.

모범도 되고 직원들에게 희망도 줬으면 한다. 교섭을 통해서 직원들을 살피지 못 하거나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전 관행과 해왔던 것으로 똑같이 가지 말고 창조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생각해보겠다.” 고 말했다.



교섭 시작 전 새로운 교섭위원 인사를 진행했으며 노측에서는 안암 김명원 조합원 구로 이동열 조합원이 참관인으로 참석했으며 이

동열 조합원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교섭 분위기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하며 교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 직원이 최우선 되는 의료원 만들 것.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인사말에서 “환자 최우선이 아니라 직원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교섭을 통해 노조에서 주신 안들에 대해 현재 비상상황이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협상을 통해서 다른 곳에

노재옥 투쟁본부장(지부장), 요구안들 많지만 2년간 묵혀온 직원들의 바람과 희망을 가져온 것.

이어 노재옥 투쟁본부장은 “고대는 단체교섭이 2년에 한 번이라 요구안이 많다. 하지만 이 요구안은 현장의견, 보건의료노동자 7만명 중 3만 여 명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준비한 것이다. 또한 요구안에는 현장직원들의 어려움과 희망이 녹아 있는 요구안이다. 그렇기에 노사가 책임있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요구안 심의 진행했으나

일부 요구안에 대한 청취 거부, 사측 요구안 제출 등 아쉬움 남아.

한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요구안에 대해 전체 발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요구안에 대해서는 ‘산별 요구안은 듣지 않겠다’ 는 입장을 고수하며 발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안 발제가 끝난 뒤 사측은 ‘사측 요구안을 발제를 하겠다’고 했다. 노측 위원들은 ‘단체교섭은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해 논의를 하는 자리지 사측의 요구를 듣는 것은 실무적인 회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발제를 저지했다. 결국 사측은 요구안을 철회했다.

[단체협약 제 13조 조합전임자 7명 -> 8명으로 조정]

[단체협약 제 15조 조합전임자 활동시간 확대]

병원	조합원 수	전임자 수
고대의료원(3개병원)	3,076	7
부산대병원(2개병원)	3,532	8
전남대병원(2개병원)	1,694	6
이화대의료원(2개병원)	1,717	7
백병원(4개병원)	4,264	8
한양대의료원(2개병원)	2,252	9

우리지부는 첫 번째 요구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전임자 인원을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요구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법으로 규정해 놓은 11,000시간에 대해서도 15,400시간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현재 법으로 보장된 11,000시간 이외에 대의원대회 및 비전임 조합 간부 활동을 추가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이 요구안은 실무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결심으로 7년만에 교섭원칙을 합의해냈다. 이는 노사가 이전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노사 의지를 굳건히 하여 앞으로의 요구안들에 대해서도 직원을 최우선으로 놓고 논의해야 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노사 신뢰의 큰 한 걸음, 7년 만의 교섭원칙 합의 이뤄내.

고대의료원 노사는 요구안 심의 전 지난 1차 교섭에서 입장차로 인해 합의하지 못한 교섭원칙에 대해 재논의 끝에 드디어 합의를 작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2012년 이후 약 7여 년 만에 합의를 작성했으며 그동안의 교섭원칙은 관례적으로 진행됐던 교섭에 대해 구두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왔다. 2020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단체교섭은 주 1회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목요일 오후 3시(단,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협의한다.)
- 2. 교섭위원은 노사 각 6인(간사포함 7인)으로 한다.
- 3. 비전임 교섭위원 공가는 교섭 당일 병원별 1인 총 3인으로 한다.
- 4. 참관인은 단체교섭 시, 교섭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5. 회의는 공개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녹음 및 사진 촬영을 허용한다.
- 6. 노사 교섭대표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노사가 협의한다.)
- 7. 교섭사회는 노사 윤번제로 한다.
-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보건의료노조 8월말 타결 목표, 산별현장교섭 박차
사립대학병원지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58% 산별현장교섭 진행중



▲7/7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4차 특성교섭이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산별현장교섭 본격화에 따라 3일부터 중앙상황실통신을 발행해 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산별현장교섭에서는 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 요구안 ▲임금인상 요구안 등을 중심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 협약개정 요구안으로는 산별현장교섭 공동

요구안 중 인력문제 해결 요구, 노동조건 표준화 요구, 특성별 공동 요구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별중앙교섭은 지난 1일 5차 교섭까지 진행됐다. 5차 교섭에서 노사는 쟁점 요구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

었다. 노사는 오는 22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건의료노조는 8월 11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안전망 확충”이라는 요구를 전면내 내걸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8월 11일 산별공동행동(가)”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별공동행동을 통해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상병수당 도입 ▲보건의료인력원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사인력 확대,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권과 노동권 보호를 요구할 계획이다.